

# 국제표준화 인증 3종 보유

### 국민연금,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 정보보호 인증·업무연속성 경영시스템 이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기금관리형 공공기관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O27701)을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O27701)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갖춘 조직의 업무 체계가 가이드 라인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국제인증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번 인증은 연금업무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포함한 공단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공단의 대응능력과 대국민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한편 공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6년 연속(2015년 ~ 20년) '최고등급'을 달성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에는 '정보보호 인증'(ISO27001)을 취득해 국제 수준의 정보보호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올해 5월에는 재단·재해 시 위기대응 수준을 평가하는 업무연속성 경영시스템(ISO22301)도 획득한 바 있다.

이번 인증에 따라 공단은 3종의 국제표준화 인증을 보유하게 됐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국제표준화 인증(ISO27701) 취득으로 공단의 개인정보 관리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태 기자



**“사회적 경제기업과 함께”... LX, 추석 직거래 장터 운영**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추석을 앞두고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지원에 나섰다 LX공사는 전북도365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전북혁신도시 사옥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의 상품을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를 열고 있다. /이영태 기자



## 주택연금 활성화 '맞손'

### 전은 주택금융공공, 협약 체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14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전북은행 서한국 은행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최준우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MOU를 통해 ▲전북은행 영업점내 주택연금 상담창구 개설 ▲주택연금 상담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주택연금 등 시니어금융 활성화 위한 공동 홍보를 추진해 고령층 및 중장년층의 노후생활자금 마련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협력 사업을 발굴·진행할 예정이다.

주택연금은 노후생활비가 부족한 중장년 및 노령층이 거주하고 있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동안 매달 연금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으로 2007년 도입 이후 2021년 8월말까지 약 8만8,000 가구가 가입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상품의 선택권을 넓혀 보다 많은 국민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은행 영업점에서 주택연금 상담과 신청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국 전북은행 은행장은 "전북도민과 함께하는 은행으로서 따뜻한 디지털 금융을 구현하면서도 이번협약을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년층에 대한 대면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영업점 창구뿐만 아니라 은행이 보유한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주택연금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수출 두드림기업 내달 1일까지

### 중진공, 유망 소상공 육성 일환 자금·온라인 진출 등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미래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수출 두드림(Do Dream)기업'을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소상공인의 수출액은 98억 달러로 중소기업 수출액 1,008억 달러의 9.2%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유망중소기업·글로벌강소기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와 같이 소상공인에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수출두드림 기업에 신청하면 중진공, 소진공, KOTRA가 수출 기반(제품 차별성 등), 수출 가능성(마케팅 역량, 수출성공가능성 등), 지속성장성(신서비스 개발 등), 수출공통역량(매출, 수출 등) 등을 공통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이후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지역별로 수출두드림기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영태 기자

수출두드림 기업에 선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자금·보증, 마케팅, 컨설팅 및 온라인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진공의 혁신형소상공인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해외비이커 상담회·해외무역관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수출 마케팅(KOTRA) 및 수출바우처(중진공)에 우선 선정한다.

또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컨설팅(소진공)과 무역전문가와의 1:1 수출멘토링(KOTRA)도 제공한다. 특히 B2B 온라인수출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www.gobizkorea.com)에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전시관을 신설하고, 해외 온라인몰(이비존, 라쿠파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합의를 맺어 소상공인의 온라인 수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1일까지며, 고비즈코리아 누리집(http://kr.gobizkorea.com)에서 두드림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수출 두드림기업과 관련된 상세 정보는 해당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태 기자

## 국립공원공단, 탄소중립 미래전략 심포지엄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지난 9월 여의도 컨선터 호텔에서 개최한 탄소중립과 한반도 자연생태계 미래전략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참석 인원을 30명으로 제한 온라인 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행사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 및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환경경부, 공단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과의 관계, 특히 백두대간 중심의 야고산생태계 기후변화 영향 등 국립공원의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의 "2050 탄소중립과 호모 심비우스의 정신"이라는 기조 강연과 경희대학교 공

우석 교수가 좌장을 맡아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 온라인 질의에 대한 응답 등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또한 최승은 국립공원연구원장, 한국환경연구원 한상운 선임연구위원, 중앙일보 강찬수 환경 전문가가 참가하여 의견을 내었다.

안호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8월 제정된 탄소중립 기본법 보완에 많은 전문가분의 말씀과 조언을 경청,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우리나라 생태가치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여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말했다.

한편 송형근 이사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공생인(共生人)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영미 기자

## “진심어린 호소로 회원업체 마음 열 것”

### 전건협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 중앙회장 선거 '도전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이 5만 여 전문건설사의 수장인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졌다.

김태경 회장은 중앙회장 도전을 위해 협회의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지난 13일 전북도회조직을 사퇴하고 14일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12대 중앙회장 후보로 등록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정오 중앙회장 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제11대, 제12대 전북도회 회장을 역임한 (유)석파토 건 김태경 대표이사(주)장평건설 윤학수 대표이사가 중앙회장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차기 중앙회장은 오는 29일 중앙회 임시총회에서 협회 대의원 165명의 표결로 결정되며, 중앙회장 선출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은 서울 등 수도권에 60명, 경상 50명, 충청·호남지역 50명 등으로 분포돼 있다.



김태경 회장은 중앙회장이 그동안 다수의 대의원을 보유한 수도권에서만 선출돼 지방은 정책참여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지방출신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돼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변화와 혁신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김태경 회장이 당선되면 전문건설사상 최초로 비수도권 출신이자 전북출신 중앙회장이라는 영예를 갖게 된다.

김태경 회장의 사퇴이후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의 차기회장은 보결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되며, 보결선거 일정은 추후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회장선출 전까지는 현임 김동수 부회장(유)도곡건

설이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김태경 회장은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전라북도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고 우리지역 발전에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중앙회장 자리에 오르겠다"며 "현재 전국 각 시·도에서의 호의적인 반응과 변화와 혁신에 대한 회원사들의 열망 어린 응원이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운동 기간동안 진심어린 호소로 회원업체의 마음을 열어 지지를 얻고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김태경 회장은 1965년생으로 지난 1988년부터 (유)석파토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전라북도회 제9대 감사와 제10대 운영위원, 제10대 도회 부회장 중앙회 제10대 대의원 제11대 전북도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해 추대에 의한 연임으로 제12대 회장에 선출됐다. /김윤상 기자

## 추석 선물택배 배송 총력 | 전북우정청, 24일까지 비상근무체제 돌입

전북지방우정청(청장 직무대리 이경우)은 추석을 맞아 지난 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6일간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추석 소포 우편물이 폭증하는 상황으로 우정청 직원 30여 명은 지난 13일부터 전주우편집중국에서 밤늦게까지 추석 소포우편물 특별지원을 하고 있다.

올 추석은 코로나19에 명절소포 물량증가까지 겹치는 어려운 상황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11% 증가한 120만 건이 소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북우정청은 1700여 명의 임시인력과 100여대의 운송차량을 증차해 우편물이 적기에 소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 이 경우 청장(직무대리)은 "안락한 코로나19 방역과 중사원의 사고 예방활동으로 고객의 소중

한 추석 선물이 안전하게 배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물량 폭주 등으로 일부 우편물배달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고객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지방우정청은 오는 24일까지는 신선식품 등 부패할 수 있는 소포우편물의 접수가 제한되며, 비대면 배달에 대비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한국식품연구원 백형희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이동복지시설 '선덕보육원'과 장애인생활시설 '은혜의동산'을 방문해 마음을 담은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 식품연, 추석 맞아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형희)은 14일 추석을 맞아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날 백형희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이동복지시설 '선덕보육원'과 장애인생활시설 '은혜의동산'을 방문해 마음을 담은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백 원장은 선덕보육원을 방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밝게 생활하고 있는 아동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약속했다. 또 은혜의동산에서는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시설 가족을 살피 주시는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나눔의 시간을 보냈다.

한편 식품(연)은 지난 2017년 완주군 청사 이전 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매월 월급의 일정금액을 모아 지속적으로 후원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쌀 400kg 쌀떡국 및 쌀국수 30상자, 방역마스크 등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식품(연) 백형희 원장은 "COVID-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지역 이웃들이 희망을 갖고 추석 명절만큼은 따뜻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위문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 새만금개발청·공사, UIN과 지속가능 도시 조성 협력

새만금개발청(청장 안충모)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말준)는 새만금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고, 사업지역 내 개발사업자 유치를 위해 세계적인 도시개발협회인 어반 랜드인스티튜트(Urban Land Institute, 이하 ULI)와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 19로 해외 투자 유치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국제 네트워크를 가진 단체와 맺은 협약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향후, 새만금개발청과 공사는 ULI의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한 투자유치 활동,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관련 행사 공동 개최, ULI 회원사 활동을 통한 국내외 전문가와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 한전 KDN, 추석 앞두고 인후1동에 사랑의 쌀 기부

한전KDN 전북지역사업처(처장 이광희)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둔 지난 13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달하고자 전주시 인후1동주민센터(동장 송문석)를 찾아 백미 10포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백미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및 코로나 위기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광희 한전KDN 전북지역사업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 속에 명절을 맞이할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신뢰를 줄 수 있는 공기업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기안전공사, 28일부터 전력산업 온택트 잡페어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이달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완주군과 함께 2021 전력산업 온택트 잡페어를 개최한다. 이번 잡페어는 수시채용 확대 등 최근 기업들의 채용 방식이 변화하면서 취업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맞춤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공사를 비롯해 LS일렉트릭, GS EFS, SK E&S, 두산퓨얼셀 등 국내 우수 전력기업 12개사가 참여한다. 특히 올해는 일직히이솔루스 등 완주군이 추천하는 3개 지역기업도 참

가한다.

참가자들에게는 기업 채용담당자와의 1:1 비대면 화상면담과 전문컨설턴트를 통한 면접노하우 코칭 기회가 제공된다. 23일까지 잡페어 홈페이지(http://jobfair.kes.or.kr)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들을 위한 온라인 이벤트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지현 사장은 "국가경제 발전을 이끄는 전력산업 분야에서 보다 많은 청년구직자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